

#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정국 돌입... 차관 인사 단행

# NEWS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 총리 인준 후 내각 구성...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 착수 장관보다 '차관' 먼저... 광주전남 출신 등용 등 기대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 인준이 이뤄지는 대로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우선 차관급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난 10일 단행된 차관급 첫 인선부터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자 앞으로의 차관과 장관 인선에 더 많은 지역 인사가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준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내각 인선은 법적으로 '장관' 임명 전까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각 인선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 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절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처리된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당시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는 정부 출범 21일 만에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해 내각 구성의 첫 기반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다.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새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내각이 모두 완비돼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 오는 8월께나 될 것이라고 보고, 우선 차관급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조카 상황을 경험한 전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에도 차관 인선을 먼저 해 문 대통령과 차관들이 새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이끌었다"며 "차관 인사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1·2

차관, 외교부 1·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 등 모두 6명의 차관을 임명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 2차관에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에는 1차관에 임명된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모두 해남 출신이다. 외교부 1차관에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국 공사는 보성 출신이다. 차관급 첫 인선부터 절반이 광주전남 인사로 채워져 앞으로의 새 정부 각료와 이를 보좌할 차관 인선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광주전남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을 떠난 지가 오래된 인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힘을 써 줄지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광주전남에 생활 기반을 둔 지역

인사들이 폭넓게 등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 인사 중에 현직 국회의원인 신정훈·민형배·주철현에 대한 각료 등용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민 의원은 문화체육부 장관, 신정훈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 장관 임명설이 나왔지만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내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뜻을 두고 있어 완고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이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인사들은 새 정부의 첫 각료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도청 윤선도출에서 열린 '우리전남 희망여름 착!착!착! 캠페인' 출범식에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여름물품키트를 사진제공=전남도

## 전남도,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팔 걷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전남도가 폭염기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성금 모금에 두팔을 걷어 올렸다. 전남도는 11일 도청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우리전남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우리전남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그동안 연말·연초에 진행됐던 모금 캠페인을 하절기까지 확장해 기업과 도민의 기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7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된다. 출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허영호 전남아너

지 편의를 위해 순천 예방양로원에 소형차량 1대, 자원봉사 활성화화 위해 전남자원봉사센터에 SUV 차량 1대를 전달했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2200여가구에 2억 4000만원 상당의 여름 물품 키트를 지원한다. 김영록 지사는 "따뜻한 나눔과 배려가 이재명 정부와 전남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동세상의 모습"이라며 "도민 한분 한분 모두가 행복한 '행복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금 기부를 바라는 도민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061-902-6800)로 문의하거나, ARS(080-890-1212), 계좌(농협 301-4000-300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입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16일 출범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60일간 활동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5년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국정기획위 출범·현판식을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한다"면서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로 연장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담자로 개정에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수, 존속 기한을 모두 바꾼 것이다. 무엇보다도 규모와 기간을 확대해 원활하고 손조롭게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출범을 앞두고 이한주 위원장은 현재 기획위원 인선 작업에 한창이므로 연월호 기자 hwahyo@gwangnam.co.kr

## 시, 시민 참여 '걷고 싶은 길' 본격 추진

### 리빙랩 사업 5곳 선정... 보행 중심 도시 기반 마련

광주시가 시민 주도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인 '2025년 걷고 싶은 길' 리빙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 영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간 또는 공동체를 일컫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함께 기획 의도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생활 속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은 광주에

민 의견을 수렴해 보행자 중심의 거리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운암3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초·중학교 주변의 통학로 실태를 조사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활동을 추진하며,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길'을 실현할 예정이다. 일곡동 주민자치회는 마을 내 보행 단절 구간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길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화정1동 주민자치회는 초등학교 주변 보행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보행 중심 도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실선 사례를 축적해 '대자보 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